

# 한우값 폭락...삼겹살에 첫 역전

한우 불고기가 돼지 삼겹살보다 못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구제역 여파로 소고기값은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반해 돼지고기 가격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훨씬 큰 구제역이 축산물 가격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2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영광 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우 경매 가격은 kg당 1만1796원으로, 지난해 1만6483원에 비해 1년 사이에 4687원(28.4%) 하락했다.

반면 돼지 경매가격은 지난해 kg당 4272원에서 올해 7380원으로 3108원(57.9%)이 급등했다. 특히 이달 들어 야외활동이 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늘어 지난해(5786원)보다 무려 1594원 폭등했다.

나주농협 도매시장 경매가격도 이날 한우는 kg당 평균 1만1573원, 돼지는 7148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한우(1만6581원)의 경우 30.2% 떨어졌

삼겹살 100g 2935원...한우 불고기 2800원

구제역 여파 수입소고기 시장 잠식 30% 하락

고, 돼지(3850원)는 85.7% 올랐다. 이처럼 한우값은 폭락하고 돼지고기값은 폭등하면서 축산물 가격 시스템도 붕괴됐다. 돼지고기가 한우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나주농협에서는 한우 최하품인 3등급의 경매가격이 kg당 1만1406원이었고, 반면 돼지 최상품인 1+등급은 4161원으로 한우가 3배 가까이 비쌌다.

하지만 1년만인 지난 20일 한우 3등급은 6951원인데 비해 돼지 1+등급은 7990원·1등급 7431원으로, 한우가 돼지 1등급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2일 오후 이마트 광주 계림점에서는 삼겹살 100g이 2950원에 판매됐다. 반면 한우 불고기·국거리용은 100g당 2800원에 팔려 한우 불고기가 삼겹살 가격만도 못했다.

주부 조모(44·여·광주시 동구 계림동) 씨는 “등급 차이는 있지만 한우가 돼지고기값보다 못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여파로 한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입산 쇠고기가 무섭게 시장을 잠식하는데, 돼지의 4분의 1가량이 매몰 처분돼 돼지고기가 공급불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야외활동이 늘어 삼겹살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우 소비 위축에 따라 산지가격이 폭락해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영광축협 가축시장에서 만난 한우농 김경수(42·영광군 대마면) 씨는 “2년 전 280만원에 송아지를 입식해 2년간 가랑 길러 550만원을 받았다”며 “2년동안 들어간 인건비·약품비는 고사하고 사료값 300만원도 건지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천용석(53·영광군 염산면) 씨도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사료값이 작년보다 20% 올랐는데 한우를 기르면서 기를수록 손해보고 있는데 또 오른다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앞치는데 덮쳐 수입 소고기마저 넘쳐나 한우농가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마트폰 대면 와인 정보가 주르르~

롯데마트는 23일 스마트폰으로 와인 레이블을 촬영하면 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선보였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계한 것으로 기존의 상품별 QR코드를 입력해 다양한 상품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점 와인 검색 시연 모습. /연합뉴스

## 코스피 55.79P 급락

유럽 재정위기 악재...18개월만에 최대폭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 중단에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기존 주도업종이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최근 1년 6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3일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55.79포인트(2.64%) 내린 2,055.71로 장을 마쳤다. 지수로는 3월 28일(2,056.39) 이후 최저치이며 하루 낙폭으로는 2009년 11월 27일(75.02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뉴욕증시 하락 등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했으며 장중 운송장비(-5.11%), 화학(-4.02%) 등 기존 주도주가 일제히 큰 폭의 조

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인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낸 것이 이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은 시간이 갈수록 현물과 선물 모두에서 매물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4093억원 가량을 팔아치워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며 선물시장에서도 7994억원(5827계약)을 순매도했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2일부터 8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총 3조3000억원 이상을 팔았다. 개인은 4618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수의 방향성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고 기관은 550억원을 팔아 지수 하락에 일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업체의 파업으로 대장주격인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시장에 불안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코스닥지수는 6거래일째 하락해 13.30포인트(2.74%) 내린 472.94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 등으로 15.10로 오른 1,097.90원에 마감했다. /임동욱기자 exian@연합뉴스

### 光銀 '더블찬스' 판매

광주은행은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KOSPI200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58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KOSPI200지수의 상승(하락)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3.5%를 제공하고, 기간지수결정일 익일로부터 만기지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25%초과 상승하는 경우 연 4.5%로, 20%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연 0.0%로 수익이 확정되는 너-아우렛 예금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 우대 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 대표 ELD상품인 더블찬스정기예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만 136억원이 판매돼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가공식품 물가 '점입가경'

오징어채 48%·빙과 31% 등 56개 품목 인상

정부의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초 폭등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물가가 치솟고 있는 품목들의 인상이 이어지거나 예상외로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

이 잠잠해지지 가공식품이 오르기 시작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물가 중심지가 가장 큰 개인서비스 가격까지 올라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 마디로 점점산 중이다.

원유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서 시

작된 물가 상승세가 견장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도 점입가경이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농축산물에서 가공식품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지난달의 경우 70개 가공식품 품목 중 80.0%인 5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특히 오징어채(48.0%) 빙과(30.6%) 설렁탕(21.4%) 고추장(20.5%) 두부(19.1%) 당면(16.6%) 즉석식품(16.6%) 카페(15.6%) 등 17개 품목은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광주테크노파크 'U-헬스케어' 추진

중소 6개사와 컨소시엄...상용화 기술개발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시 미래 융합산업으로 선정된 U-헬스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3일 U-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광주지역 중소기업 6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부터 보유 기술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U-헬스케어 사업은 의료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 LED·LD패키징센터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광주시는 대학병원·보건소·요양병원 등과 협력 사업을, (주)쿠보텍·(주)명신메디칼·대신전자(주)·(주)바소콤 등 참여 기업들은 U-헬스기기의 성능 개선·상용화 기술개발에 전력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광주지역 5개 보건소, 전남대병원, 변영요양병원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18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U-생활지원 시범사업 발대식 및 U-헬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U-헬스 네트워크가 구축하고 있는 광주와 대전, 경주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光銀 분리매각 특단의 대책을”

광주시, 정부에 지역자본 인수 촉구 공문

광주시가 광주은행의 분리매각과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3일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항토기업인 광주은행은 지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

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광주시는 “지역 상공인 중심으로 출자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광주은행 인수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금융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역 경제

가 반발하고 있다”며 “광주은행이 계속 지주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인 지역 중소기업 및 시민의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괄매각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 편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광주은행이 지역 자본에 의해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al@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번 한번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리 엑스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시청 지하실 로대역 3·4번출구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월드덕** 소리는 원재로는 물론 맛과 품격이 다릅니다!!

大韓民國 신지식인의 집  
오리요리 전문가 월드덕 박만순 대표

광주 1등 맛집 1회부터 연속 선정.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 맛집. 우리은행 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선정. 2010 Korea food Expo.COEX 셰프의 상차림 월드덕 불꽃 요리 출품.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월드덕 코스 요리 등 오리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덕 추천오리**

즉석 불꽃구이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물이나 술에 타서 드시면 몸에 좋은 “발효 호소” 서비스 제공

**돌잔치/회갑연/단체 모임 환영**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월드덕 예약문의 062)671-2177,1177** (위치:봉선동 쌍용APT 사거리)